

다산포럼

양김 시대 넘어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김 태 희  
다산연구소 소장

한국 현대정치사의 한 영웅이 세상을 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생과 함께 한국 민주화의 역동적 과정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1979년 10월, 꿈쩍도 않을 듯했던 유신 독재정권이 갑자기 무너졌다. 그 계기는 야당 총재 김영삼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저항, 그리고 부마항쟁이었다. 얼마 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눈길을 끌었다. ‘국민 대화 4자 기구’(National Dialogue Quartet)라는 튀니지의 민주화단체였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해 아랍에 번졌던 ‘아랍의 봄’이 튀니지처럼 성공적으로만 진행되진 않았다. 다시 군부독재가 되풀이 되거나 내전 상태에 빠져든 나라도 있다. 민주화 역정을 겪은 경험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 대중 시위만으로는 민

주와 성취에 한계가 있다. 둘째, 투쟁과 전복 다음에는 통합과 건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반 대중과 지식인은 엇갈리곤 한다. 선구자적 희생이 계속 되어도 민초들은 생업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일반 대중이 행동에 돌입하면, 혼계하거나 맹신하던 지식인들은 그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허둥댄다. 독을 무너뜨린 물처럼 물결의 방향은 알 수 없다. 온갖 권력 추종자들과 군부와 외세가 기회를 노린다. 기존 권력을 붕괴시킬 수는 있어도, 새 권력을 건설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이다. 돌아보면, 양김의 분열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양김이 민주화운동의 구심이 되었기에 일어난 문제였다. 그만큼 역할과 공헌을 했다는 의미다. 양김은 곡절 끝에 차례로 대통령이 되어 큰일을 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중대한 개혁을 주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큰 실망을 주기도 했다. 다른 한 분은 외환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평가되었지만 후일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이러저러한 양김의 한계가 바로 새로

운 정치 리더십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통합’과 ‘화합’이었다고 전한다.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통합과 건설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이념투쟁을 일삼는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의제 설정에서 시작된다. 탕평군주 정조는 즉위한 날, 사도세자의 추송(追送)을 거론하는 자는 처벌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사적인 복수심을 정쟁의 실마리로 삼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민생·인사·군정·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천주교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는 정치쟁쟁화하지 않도록 학문의 문제로 돌렸다. 분열의 의제를 제거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정조가 죽자 수렴정정을 맡게 된 정순왕후는 위정척사(衛正斥邪)를 명분으로 신유사육이라는 공안정국을 일으켰다. 자신의 집안을 필박한 사람들을 천주교도로 몰아 탄압했다. 사사로운 복수심과 노론 벽파의 권력욕이 결합한 것이다.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 세력은 5년 후에 모두 숙청됐다. 반면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빌미로 삼았던 천주교는 탄압 속에 더욱 확산되어 갔다. 사회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위정자들은 권력

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곧잘 이념으로 포장한다. 이념은 옳고 그름을 단순화시키고, 진영논리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기 진영만이 옳다는 독선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념은 무능·부패를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야당이라 하여 집권야당이 던진 의제에 끌려만 가서는 곤란하다. 자신이 옳다 하더라도 분열적 이념투쟁의 의제에만 매몰되어서도 곤란하다. 통합과 건설의 리더십은 의제 설정에서 시작해 대안 제시와 역량 결집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동안 집권여당이 패착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대안 능력을 의심 받기 때문이다. 대안 제시는 백화점식 공약집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미리 보여주어야 한다. 통합과 건설의 리더십은 옳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동기가 좋아도 결과가 열매되지 않을 수 있다. 정치 지도자는 옳은 게 전부야 아니다. 뜻만으로는 안 되고, 밝아야 한다.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양김 시대가 세월에 밀려갔다. 이 시대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은 구축되어 있는가.

기고

완도 청정 바다맛을 즐기세요



신 우 철  
완도군수

“광어다, 아니다. 그것도 모르냐? 도다리다.” 횡집 수족관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물고기를 내다보면서 벌어지는 논쟁이다. 짐승을 자극하는 횡감을 눈앞에 두고 한뼘쯤은 다 해봤을 추억의 한 장면인 것 같다. 고기의 머리를 마주 봤을 때 눈이 왼쪽에 물러 있으면 일명 ‘넙치’라고 불리는 광어이고, 오른쪽에 물러 있으면 도다리다. 즉 같은 두 올챙이인 왼쪽이면 광어, 세 올챙이 오른쪽이면 도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것이다. 아시아까지 광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횡감 중 하나다. 고기 맛이 담백하고 쫄깃하며, 대량 양식에 성공하면서부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저지방,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면서 굵으면 부드러운 소화가 걱정인 환자와 노약자의 영양식으로 좋다. 거기에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여성들의 주름제거 및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얼마 전 다른 지역 광어양식장에서 가족용 항생제를 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리 완도 광어까지 그 여파가 있을까 노심초사했었다. 우리 완도에서는 그런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 바다 바닥이 맥반석과 조석으로 이뤄진데다 청정바다수도를 선택할 만큼 깨끗한 바다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도 없다. 그 깨끗한 환경에서 매년 1만3000t씩 생산되는 완도 광어는 색채와 육질이 뛰어나 미식가들에게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가 아는 생선회의 종류는 보통 활어회와 선어회다. 활어회를 먹어보면 육질은 단단하지만 혀로 느끼는 감칠맛은 떨어진다. 선어회는 활어를 손질해 냉고로 보관해놓고 3~4일까지 먹는 것으로 육질은 퍼석하지만 감칠맛은 좋다. 따라서 활어는 주로 횡감으로, 선어는 초밥에 쓰인다. 이외에 싱싱회라는 것이 있다. 선어회의 범주에 들어가는 새로운 이름이다. 그

랑다고 대강 지은 게 아니라 지난 2005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해서 공식적으로 정한 이름이다. 활어를 손질해서 냉장보관 후 하루 이내에 먹는 회인데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갯 접은 활어의 육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노신산 성분이 풍부해져서 단 맛이 강도는 감칠맛은 10배 이상 좋아진다고 한다. 필자가 주목한 것이 이 대목이었다. “바쁜 일 때문에 완도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쫄깃쫄깃 감칠맛 나는 완도 광어 싱싱회를 맛있게 해드릴까?”라는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전국 택배 배달서비스다. 요즘 완도항 포구에 있는 대형회 센터들은 바쁘다. 전국으로 보낼 싱싱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싱싱회는 고객의 주문과 동시에 손질한 생선의 큰 살점과 뼈를 아이스 팩으로 감싼 냉장상태로 택배로 배달된다. 신선 횡집보다 값이 절반 이상 저렴하고, 또 전하로 손쉽게 주문해서 회부터 매운탕까지 푸짐하게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완도군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인 완도군이슈에 들어가면 명품광어 구입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현재 완도 관내에 있는 우성, 영진, 장보고, 학림회센터 내에 있는 47개 점포에서 택배 서비스를 한다. 올 들어서만 2천3백여 건의 택배 주문을 받아 1억7천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택배로 완도 광어 싱싱회를 받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은 “다른 지역에서 먹는 것보다 육질이 신선하고 좋다”면서 “횡집에서 먹는 것보다 양도 많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 “중국인은 회를 먹지 않는다. 말린 고기라 해도 반드시 익혀 먹고, 우리나라 사람이 회를 먹는 것을 보고 웃는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던 요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던 회, 그중에서도 완도 광어 싱싱회를 우리 국민들의 입맛에 최적화된 회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든 주문만 하면 받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회는 반드시 선지에서 또는 횡집에서 먹어야 제 맛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바쁜 일상에 찌든 우리 국민들에게 싱싱한 생선회와 해조류의 본 맛을 찾아드리려 한다. 완도 전북과 미역, 다시마, 툷, 매생이는 물론이고, 완도 광어 싱싱회를 통해서.

서재, 세상을 말하다

초의(草衣)의 서재 일로향실(一爐香室)



박 철 상  
문화박사·광주은행 영업지원부장

조선유기에 이르면 사회 각 분야에서 여향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그들은 여향(閨巷) 지식인으로서 자신들의 특장을 지니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기에 이른다. 시와 서화 분야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사회의 중심을 이루던 서울의 사대부들은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에 이른다. 지식인이라면 신분의 비전을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승려들은 천민보다도 못한 부류의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물론 지식인으로 인정받으며 사대부들과 교류하던 인물들

이 있긴 했지만 일부에 불과했다. 초의(草衣: 1786~1866) 역시 그런 인물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그는 19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두 지식인 다산, 추사와 동시에 교류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특히 그는 시와 그림, 그리고 차를 통해서 조선후기 지식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의 속성은 장(張)씨였고 자는 중부(仲孚), 법명(法名)은 의순(意順)이었으며 초의(草衣 또는 草衣)는 그의 호이다. 15세에 전라도 나주의 운흥사(雲興寺)에 들어가 벽봉민성(碧峯敏性)에게 의지하여 승려가 되었고, 해남 대흥사(大興寺)에서 완호(玩虎) 스님이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이후 대흥사를 떠나지 않고 경전을 공부하였으며, 행화를 잘 그려 많은 작품을 그렸다. 24세 되던 1809년에는 강진에 유배중이던 다산 정약용과 만나면서 그의 일생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다산에게 유학(儒學)과 시를 배우면서 다산의 자제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추사의 형제들, 자하 신위(申緯), 정조의 사위 홍헌주(洪顯周) 등 당시 서울의 문사들과 교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추사 김정희와 깊은 교류를 하면서 이를 통해 그의 이름이 조선 전역에 알려졌다. 둘은 나이가 같기도 했는데, 1815년에 처음 교류를 시작한 이래 돈독한 우정을 자랑하였다. 초의는 차를 잘 만들기에 유명하였다. 그가 만든 차를 초의차(草衣茶)라 했는데, 추사는 그가 만든 차를 유독 좋아하였다. 추사는 24세 되던 1809년 부친을 따라 연경에 갔다가 완원(阮元)의 서재인 태화쌍비지관(泰華雙碑之館)에 초대 받아 웅단승설(龍團勝雪)이라는 명차를 대접받고 돌아왔는데, 이후 추사는 그 맛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가 초의가 만든 차를 마셔보고는 그 맛에 폭 빠져든 것이다. 추사는 초의에게 편지를 보내 차를 보내달라고 때를 쓰기 일주였다. 특히 추사는 제주도도 유배된 뒤로 더욱 초의를 그리워하였고, 초의가 만든 차에 목말라 했다. 초의는 해마다 차를 만들어 추사에게 공급하였지만, 제주도에 유배된 뒤로는 그마저 쉽지 않았다. 초의는 유배객 신세의 추사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차를 보내면서 한 번 찾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추사에게 전했다. 추사는

초의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였다. 그 먼 곳까지 와달라는 이야기는 초의에게 할 수 없었는데, 초의가 알아서 온다니 추사로서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다. 그렇게 추사를 찾은 초의는 여섯 달을 함께 지내다가 물으로 돌아갔다. 이후 추사는 ‘일로향실(一爐香室)’이라 쓴 편액을 초의에게 보냈다. 초의로부터 받은 차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일로향실’은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하면서 초의가 거처하던 곳의 이름이다. 초의(草衣)는 승려이다. 서재(書齋)란 게 처음부터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19세기를 대표하는 두 지식인과 교류를 하면서 큰 자취를 남겼다. 그는 차와 시를 통해 선(禪)에 이른 대표적 지식인이다. 그의 서재 일로향실에는 수많은 서적들이 넘쳐났고, 그가 만든 차의 향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차향은 19세기의 지식 추사(秋史)를 매료시켰고, 차와 시를 통해 19세기 지식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초의다(草衣茶)는 아닐지라도 다향(茶香)이 그리운 계절이다. 초의(草衣)가 그리운 사람들이.

社說

내일 전당 개관...문화수도로 가는 첫발 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이 내일 공식 개관한다. 지난 9월 초 4개원(장조원, 예술극장, 정보원, 어린이문화원)의 부분 개관에 이어 최근 단장을 마친 민주평화교류원까지 모두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2004년 사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 전당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뜬지 8년이 만이다. 이제 전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조성사업) 완결이 과제로 남는다. 사실 전당 완공과 개관은 광주를 ‘문화발전소’로 만들어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조성사업의 첫 결실이다. 전당 완공만으로 계획이 끝나지 않기에 아쉬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큰 교두보가 확보된 것이라고 하겠다. 조성사업은 핵심인 전당을 주축으로 아시아의 문화교류·전승문화·경관생태·교육문화·신과학·시각미디어를 테마로 하는 7대 권역별 프로젝트를 추

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2013년까지 마무리될 때 광주는 아시아문화수도로 거듭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남은 과제를 모두 끝내야 비로소 사업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정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조성사업에는 올해까지 국비 1조 329억 원, 시비 675억 원, 민간투자 490억 원이 집행됐다. 대부분 전당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들어간 돈이다. 국비 1조7350억 원, 시비 7211억 원, 민자 1조6847억 원이 더 들어가야 대역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다. 이제 조성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하겠다. 앞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서더라도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야 사업을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전남쌀 중국 수출 교두보 반드시 확보를

최근 3년 연속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크게 웃돌면서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사름이 깊어지고 있다. 쌀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쌀의 공급과잉 기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열린 한·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 길이 조만간 열리게 됐다. 남아도는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최근 중국에서는 유기농 등 고급 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쌀은 중국산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일본·대만산과 비교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품질 위주의 ‘고기미 전략’과 ‘중저가 시장’ 투트랙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난관이 있다. 대

(對) 중국 쌀 수출 교두보로 여겨지는 가공공장 선정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사름이 깊어지고 있다. 쌀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쌀의 공급과잉 기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열린 한·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 길이 조만간 열리게 됐다. 남아도는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최근 중국에서는 유기농 등 고급 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쌀은 중국산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일본·대만산과 비교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품질 위주의 ‘고기미 전략’과 ‘중저가 시장’ 투트랙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난관이 있다. 대

無 等 鼓

‘대화’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의 철학 등을 대화형식으로 기록한 고전이라면 ‘대담’은 경희대 도정일 명예교수와 국립생태원 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간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대화’를 엮은 책이다. 두 학자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무릎을 맞대고 ‘DNA는 영혼을 복제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야 하는가’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었다. 두 학자의 대화를 정리한 ‘대담’이 출간된 때는 2005년 11월. 이 책에서 최 교수는 “대담 내내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쌓여 있는 눈을 녹여 보려고 끈질기게 군벌을 지켰다”고 멋지게 말했다. 두 학자의 작은 시도는 ‘분단의 벽’ 같은 것으로 막혀 있던 인문학과 자연과학 학문 간 대화에 불꽃을 뿜고, 한국사회에 ‘통섭’(統攝)과 ‘융합’(融合)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문과·이과 구분 없이 통합 교육과정을 시행할 예정이고, 기업도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인문학 전공자를

뽀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적인 괴짜’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요즘의 통섭·융합 분위기를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지나온 대학시절이 조금 아쉽다. 1980년대 중반 공과대학에 다 도시계획을 전공했는데 도시설계나 교통공학의 울타리를 늘 벗어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고에서 이과와 문과의 구분이 엄격하던 당시 공대에 진학하면 전공 외

에 관심 있는 다른 인문학 관련 과목을 공부하기란 쉽지 않았다. 몇몇 교양과목들이 있었지만 수준은 낮았다. 몇몇 과목은 공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국문학과나 미술대학 친구들과 교류하며 책을 찾아 읽거나 문학·사건·음악 동아리 등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여러 갈래 대안을 찾는 동기가 더러 있었기는 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를 허문 ‘통섭’의 개념이 소개된 지 10년을 맞았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학문 간 통섭과 융합으로 소통이 부족한 한국 학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싶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대담’과 ‘통섭’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